

한국산 뭉뚝날개나방과(나비목)의 분류학적 연구

I. 연구사 및 미기록 8종

배양섭, 이봉우, 백문기, Y. Arita¹

인천대학교 생물학과, ¹日本 名城大學 動物學研究室

나비류는 주간에 활동하고 나방류는 야간에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나방류 115과중 60과 이상에서 일부 또는 모든 종이 주간이나 해그림에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뭉뚝날개나방과는 전세계에 현재까지 402종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분류군으로서 대부분의 종은 낮에 활동 하며 날개표면에는 금속광택을 띠는 종이 많으며 날개길이 5-20mm의 미소나방류이다. 본 과는 그림날개나방과와 유사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과로 취급되어 왔으나 Heppner (1977)에 의해서 독립된 과로 취급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까지 집나방상과나 유리나방상과로 취급되었으나 Minet (1986, 1991)이후 별개의 상과인 Choreutoidea상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2종, 우영뭉뚝날개나방과 자귀뭉뚝날개나방이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분류체계로는 자귀뭉뚝날개나방은 Galacticae에 소속됨으로 1종의 기록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채집한 표본과 일본에서 확인한 한국산 표본을 검토한 결과, 4속 8종이 추가로 기록되어 성충 및 암수생식기를 비교하여 연구사와 함께 보고한다.